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사도행전 · 예레미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사도행전 · 예레미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2월의 '사랑'

날이 추워지면 자꾸 따뜻한 곳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겨울에도 춥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아 8:6~7).



사랑은 추위를 넉넉히 몰아내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물이 아니라 얼음 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꺼지지 않는 사랑을 얻은 사람이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지나며 추위와 굶주림을 견어야 했던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사랑!

그는 그 사랑에 기꺼이 자신의 연약한 몸을 내어 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위와 굶주림을 모면하려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추운 날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소유하신 그분의 포로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말씀은 그분의 자비로운 음성이 되고, 그분을 향한 기도는 가장 따스한 사랑의 송가가 되어서, 뽕뽕 얼어붙은 세상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요일 4:18).

2002년 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예레미야 서론

본서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1:1).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로써 예루살렘 북쪽 방향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도시였던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왕 13년(B.C. 627년, 렘 1:2) 왕이 20여세 될 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다에서 40년간을 사역한(B.C. 626년부터 586년까지) 그 후에는 흩어진 완고한 잔존 이스라엘인들에게 사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그가 받은 고난과 역경과 온갖 멸시 때문에 그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20:14-15). 때로는 그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선지자 노릇까지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20:19). 그러나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헌신과 눈물로 그의 사역을 감수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초기 예언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국운이 기울어질 때에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1-39장). 나머지 장들은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멸망의 결과로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팔레스틴 땅 주위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유다에 닥칠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울적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졌습니다.

유다에서 사역하는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며 바벨론에 복종함으로 불필요한 파괴와 고통을 피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예레미야의 사역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21:1-9, 27:6-15를 참조). 그는 자신의 요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음(3:6-25), 베띠와 부서진 병(13:1-27), 토기장이 집의 메세지(18:1-18) 등의 다양한 예증과 실물 교육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실이었고 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 궁극적으로 그것이 입증되었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로 인해 책망 당하고 거절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26:10-15, 32:1-5).

예레미야의 주된 공헌 중에 하나는 새 언약에 대한 그의 메시지였습니다(31:31-34).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하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며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죽음이 새 언약의 근거임을 말씀하셨습니다(눅 22:20).

새 언약에 근거한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왔으며 장래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롬 11:25-27; 단 9:24).

결국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이 겪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용분해

1. 예루살렘 멸망 전의 예언(1-39장)

- 1)요시아 재위 기간의 예언(1-12장)
- 2)여호야김 재위 기간의 예언(13-20장;25-26장;35-36장)
- 3)시드기야 재위 기간의 예언(21-24장;27-34장;37-39장)

2. 예루살렘 멸망 후의 예언(40-52장)

- 1)팔레스틴안에 있는 남은 자에게 한 예언(40-43장)
- 2)애굽에 남아 있는 자에게 한 예언(44장)
- 3)바벨론에 남은 자에게 한 예언(45-52장)

본 장의 전반부 1-16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귀환함으로 3차 전도여행이 마쳐지는 내용입니다. 17-40절은 광신적인 유대주의자들과의 충돌로 인한 바울의 체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입니다.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성령께서는 선지자 아가보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갈 것을 재차 고백합니다. 13절은 바울의 순교적인 신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길에는 고난과 고통, 더 나아가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순탄한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다 보면 모진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도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가셨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 제목 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 1-21절까지는 바울이 체포 직후 유대 군중들 앞에서 행한 복음 및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변론이, 22-30절은 유대 군중들의 소요와 공회의 소집 그리고 바울의 로마 시민권 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9절 말씀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채찍질하고 결박한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 아무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의 백성들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권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빌3:20).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보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28:20). 젖먹이를 보호하는 부모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호한다고 말씀하십니다(사49:15).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시민임을 깨닫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죽음의 위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교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담대히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선교를 위한 뜻이 성취되도록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도 오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순간에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닌, 영원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삶의 목적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당당하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권세자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고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기독교가 반대한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히11:38)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 생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변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참 생명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삶에서 그리스도와 이웃을 향한 희생을 나타내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변함없는 마음은 곧 그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진 영적인 소원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수없는 절차와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그의 신앙의 전부였으며 이미 성취된 사건이요 실재였습니다. 또 하나, 그의 소원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를 선교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은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의 속에서 그 지상명령에 따른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가 끝까지 상소를 하면서 로마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유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은 바울이 로마로 건너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옴으로 해서 유럽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모든 야만과 우상에서 벗어나서 오늘날의 변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들고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그것에 대한 확신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제목 / ① 내 안에 확실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를 선한 의지도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의 모습이 당당한 사람을 과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바로 그 과거가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누구의 체험 못지 않게 가슴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로 떠나기 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식과 학벌, 가문과 지위.... 현대에서도 그 정도면 아마 보통 사람이 그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만큼 강렬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세상의 왕 앞에서 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18절의 간증처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도 그의 로마 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 변화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에 미치십시오.

오직 복음에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동일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유대 땅에서 대략 2년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미결수(未決囚)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바울의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8절은 가이사라에서 미항까지의 로마 여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9-44절은 미항에서 출항하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표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선박으로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를 주장했습니다(9,10절). 그러나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해를 강행하여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선장을 비롯한 배에 탄 사람들은 무려 14일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14-20절).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담대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23,24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21-26절). 그 결과 바울의 구원 선포로 인해 배 안의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최악된 세상에 살지만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반부인 1-10절에서는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파선한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서 약 3개월 간 머물면서 발생한 두 사건 즉,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던지다가 독사에게 손을 물렸으나 죽지 않은 사건과 열병과 이질에 걸린 원주민 지도자의 부친을 살려 복음을 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섬에 복음을 전하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록 광풍으로 인해 구사일생으로 도착한 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문하시고 그가 택한 백성들을 복음을 통하여 구원시키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31절의 하반부는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과 비록 결박된 몸이었지만 그 속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미결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께서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건과 장소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직장가 가정과 이웃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묶여도 복음은 결단코 묶이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선교 여행에 헌신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레미야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소명 받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 출신 배경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의 사역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0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소명을 거부한 사실입니다(5,6절). 이러한 모습은 과거 모세(출4장)나 기드온(삿6장)의 경우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철저한 자기부인(自己否認)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직이 임시 방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계획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예레미야가 아이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성도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백성들로부터 거부 당하셨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투고...다투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언 사역이 시작되는 본 장은 앞으로 폭로될 죄악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보였던 사랑과 신뢰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4-28절에서는 열거된 여섯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유다의 죄악상을 낱말이 들추어냄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필연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37절에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2절). 예레미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누렸던 모든 축복은 바로 이런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배신 때문에 깨어졌음을 통분히 여기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를 잊고 다시 죄악의 길을 감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 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1-5절까지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 필연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10절까지는 북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1-25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애절한 음성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12,13,14,22절). 그리고 "죄를 자복하라"고 애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남편되신 하나님께서(14절) 노를 품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12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사랑의 음성으로 권유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과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상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땅에는 성도(聖徒)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에게 포로가 되어서 치욕스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죄악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픈 슬픔의 탄식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전(前) 장에 이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5-18절은 거둔 된 회개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19-31절에서는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와 유다 멸망의 참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없는 슬픔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슬퍼하십니까? 그것은 완고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백성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22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행실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상처를 보면서 슬퍼하십니다(31절). 하나님의 그 슬픔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 고통 당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통 때문에 한 없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늘 받기만 하고 슬픔만 더하는 물염치한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더 이상 그 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맙시다.

기도 제목 / ①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용서해 주시지만 택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여 구속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언약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12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13절). 보냄 받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보낸 자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함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다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무한한 축복을 준비해 두셨지만 유다 백성은 그것을 오히려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죄의 담을 쌓고 그 축복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심판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다의 범죄는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고 언약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거부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거절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며 점점 멸망의 길로 빠져 갔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한 심판의 임박함과 회개의 간절한 호소는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방 군대의 침략이 임박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1-8절).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며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인데도(9-12)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평강하다고 합니다(13-14절). 그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한 길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조들이 걸어온 길을 보고 배우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15-21절).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다 백성의 패역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22-3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은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16절)” 고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마11:29)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배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시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레미야 2-20장에는 심판에 대한 9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 세 번째 예언이 7-10장에 나와있습니다. 7장에서는 위선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성전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큰 잘못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전혀 진실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1-15절). 유다 백성들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9절)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불순종을 낱알이 지적합니다(16-28절). 나아가 유다 백성은 힌놈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방신의 종교의식을 용인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과렴치한 행위인지 선지자는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29-34절).

거짓 신앙과 잘못된 예배는 형식에 치우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일간 하나님과 떠나 있다가 주일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선지자의 세 번째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권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결과로 비참해질 조국을 미리 보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탄식을 쏟아냅니다.

유대 민족이 심판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악을 낚으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우매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치 않는 백성들의 완고함입니다(4-7절). 서기관과 제사장 즉,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백성들에게 평강만 외치고 책망은 하지 않습니다(8-12절). 이러한 결과로 받게 될 유다의 재난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는 동족에 대한 사랑을 슬픔의 노래로 표현합니다(13-22절). 유다의 파멸의 원인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이 굳은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나의 이웃, 나의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의 인류를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보시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완고한 백성일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육신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슬픔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기쁨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밤을 세워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이웃, 진실을 멀리하고 거짓을 앞세우는 유다의 불신앙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슬픔은 한없이 깊어만 갑니다. 언약에 대해 불성실하고 거짓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족의 모습을 보며 고뇌에 찬 탄식을 합니다(1-9절). 유다의 산과 들은 황폐하게 되고 가축도 짐승도 공중의 새 까지도 없어지는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며 선지자는 애곡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10-16절). 이 모든 눈물은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본질을 오해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는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17-26절).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온 인류를 위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밤을 세워가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의인의 눈물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영혼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열심을 주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번째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에 대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강조함으로써 우상 숭배가 갖는 허무함을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전혀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2-7절). 우상은 생명이 없으나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8-10절).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11-13절). 그러므로 우상에 경배함은 어리석은 것이며 헛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14-16절). 결국 하나님은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심판을 말씀하십니다.(18절) 그러자 선지자의 슬픔은 더해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19-25절).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상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섬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가치나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만 섬기는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약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굳센 영혼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한 유다를 향하여 언약의 내용대로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23절은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에 대한 완고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의 일면으로써,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 살해 음모와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공의의 심판 호소 및 하나님의 보응 약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함으로 파기된 옛 언약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새 언약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행되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고 있는 성도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효력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주를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소서.
② 긴급 철수한 이슬람선교지 R국과 방글라데시에 그동안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악하고, 패역한 자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1절) 이 질문은 아주 옛날부터 계속 되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관계된 말을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위선이라는 것(2절)이 예레미야의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그의 의문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답변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더 큰 시련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즉 그가 이런 단순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뒤따라 올 더 큰 신앙의 시험들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5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욕에 갇힌 세레 요한의 신앙이 동요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었던 든든한 위로와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요한 둘 다에게 이와 같은 든든한 위로는 있었기에 그로 말미암아 그들 둘은 최후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물었던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되며, 의인이 곤고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세레 요한이 살았던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능히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잠16:18)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썩어버린 베옷과 포도주 병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넘어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 장은 비유의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11절은 썩은 베띠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하여 열방에 대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으나 유다 백성들은 교만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후반부 12-14절은 포도주 병의 비유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유다의 징벌을 포도주 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5-27절은 유다에 대한 세가지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둘째는 유대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을,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견고해져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의 수치를 당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직 사명을 맡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맡은 바 사명과 특권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크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과거 선민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그 맡은 바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했을 때 버리셨듯이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망각한다면 우리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의식을 날로 고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교만하지 않고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다 백성들은 비(雨)가 잘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호의의 증거로 이해했고, 가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비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본문은 가뭄에 대한 생생한 묘사에서 시작됩니다. 1-6절까지는 유다에 임한 가뭄으로 야생동물까지도 죽어 가는 극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7-22절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답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내용을 보면 7-9절은 유대의 범죄함을 고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있고, 10-18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말함으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19-22절은 두 번째 기도로 재차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지만 그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여러분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구원의 음성을 들려 주셨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재난은 완전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② 단기선교를 통해 가야할 땅을 열어주시고, 이 일을 이해 전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어지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전혀 회개하는 기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유다를 향하여 모세와 사무엘이 간구 할지라도 듣지 않으실 것과 사망과 칼, 기근, 포로됨의 재앙을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5-9절은 예루살렘이 당할 파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0-18절은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21절은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예레미야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고 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박해를 받으며 때때로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위로와 용기를 주심으로 그 말은 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에 엘리야도 호렙산 동굴에서 힘을 얻었고, 예레미야도 고난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된 우리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② 최은아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고,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레미야는 불임성 있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상가 및 혼인집 출입을 금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1-9절). 그 당시의 시대는 긴급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자(10-13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는 바빌론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유다를 향하여 범죄의 결과 및 열방의 회개, 유다의 회복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14-21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 순간의 단절도 없이 전개되는 연속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실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당신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당신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지 않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죄까지도 용서하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히 징계하시지만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16장과 연결된 부분으로 1-18절은 유다 심판의 불가피성과 예레미야의 탄원, 19-27절은 안식일을 성수할 것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고려고 하는 것은 7절 말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능한 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간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대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삶에 대해 물도 새지 않을 만큼 용의주도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5절) 여호와를 떠난 자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그 분만 온전히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18-20장에 걸친 여호와와 주권에 근거하여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의 첫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12절은 토기장이의 비유이고 13-23절은 완고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예레미야의 탄식에 찬 간구입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6절의 말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작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예레미야는 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6절).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근거하여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라 불리는 부분으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실로 패역하기 그지없는 유다가 완전히 황폐화될 것을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1절 말씀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쓸모 없다고 판단된 토기를 깨뜨리면 결코 복원할 수 없듯이 죄와 허물로 오염된 유다 역시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합당한 것만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를 먹고 심판 받았던 아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으로 인해 버림받았던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토기장이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의 일면으로 특히 제사장 바스홀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의 거둬진 모진 박해에 직면한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탄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8절 말씀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의 지도자 바스홀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종교인이 빠지기 쉬운 유혹 중의 하나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여 인기를 독차지하고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의식중에 사람들을 더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스홀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당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종일토록 오고가는 사람들의 멸시와 치욕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예레미야가 멸망과 환란을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고 체포했을까요? 그들은 현실의 세계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경고하였습니다. 바스홀과 예레미야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랐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바로 전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찬송 / 399장(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본문 / 출 4:21~23

들어가면서(서론)

창조자이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22절~23절). 이 인상적인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의 특별한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위치를 밝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의 눈은 매일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들 때문에 그러한 감동과 특권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총을 쉽게 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며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봅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399장)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미국 펜실베이니아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던 러셀 켈 소 카터(R. K. Carter, 1849~1928)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였는데 특별히 이 찬송은 그가 로마서 4:20-21 말씀에 은혜 받아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0-21)

하나님께서선 나이가 백 세나 된 아브라함과 태가 끊긴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번창할 것과 인류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 있었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롬 4:18)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르칠 수 있을만한 인간적인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변성하게 된 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수 백년간을 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모세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기 위하여 열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된 날 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곡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점음표(부점)로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기에 너무나 기쁜 마음을 담아서 춤을 추듯 흥겹게 찬양합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출애굽기 4:21~23을 읽으십시오).

① 21절 - 모세를 향한 명령과 그 결과

② 22절 - 모세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③ 23절 - 바로를 향한 경고

2. 다음주일 설교('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를 읽고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창세기 12장2절과 15장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②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생애의 특징을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시켜 간략하게 말해보십시오.

③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보낸 400여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보십시오.

④ 모세의 생애를 간략하게 말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지 말해보십시오.

⑤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복을 발견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⑥ 갈라디아서 3장26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⑦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로의 거부는 왜 그토록 심각한 것입니까?

⑧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⑨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호세아 11:1).”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 2:15).” 다음의 두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가면서(결론)

1.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졌다는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것들에게 내어 맡기거나 끌려 다니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무엇에 끌려 다니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2.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목 :

마침 :

제 2 과

축복 받은 자는

찬송 / 235장(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본문 / 눅 11:14~28

들어가면서(서론)

예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군중들 가운데서 일부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분석했고, 이 기적이 '바알세불'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바알세불'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사단을 부를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군중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이 기적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임을 증명하는 어떤 표적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간단한 진리를 통해서 군중들의 혼란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분열된 집안이 무너지는 예를 통해서 밝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18절). 주님의 설명의 진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35장)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 119:103~105)

미국 시카고 레벨출판사 사장 플레밍 레벨은 1874년에 주일학교 기관지인 「생명의 말씀」(Words of Life)을 출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은 그가 은혜 받은 말씀인 요한복음 6:68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 오리이까.” (요 6:68)

그는 당시 찬송작가이던 필립 폴 블리스(P. P. Bliss, 1838~1876)에게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출간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며 이에 걸맞는 찬송가를 작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블리스에 의해 작사 작곡된 이 찬송가는 「생명의 말씀」창간호에 실리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널리 애창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마 6:24)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세상의 논리와 전통과 문화가 섞여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사람 앞에선 통할지 몰라도 공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죽어지고 부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참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령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8분의 6박자로 된 이 찬송은 한 마디를 두 박자로 해서 생기 발랄하게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곁에서 맘껏 뛰놀며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이 되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20절).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 심지어는 위선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을 못하던 한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훌륭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복된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누가복음 11:14~28을 읽으십시오).

① 14절 -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② 15절~16절 -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

③ 17절 - 예수의 비유(1)

④ 18절~20절 - 부정적 반응에 대한 결론(1)

⑤ 21절~22절 - 예수의 비유(2)

⑥ 23절 - 부정적 반응에 대한 결론(2)

⑦ 24절~26절 - 예수의 비유(3)

⑧ 27절~28절 - 여인의 긍정적 반응

2. 다음주일 설교('축복 받은 자는')을 읽고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예수께서 힘의 논리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라도 더 강한 자에게 쫓겨난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는 누구며, 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② 27절에서 예수를 향한 여인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을 연상시키고 있습니까?

③ 예수께서는 여인을 향하여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2:50 참조)

④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복 있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⑥ 진정으로 복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나가면서(결론)

1. 오늘의 본문에는 인간이 가지는 커다란 '영적인 오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단은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예수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바알세불의 권세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했다면 분명히 자랑했을 것입니다.
2.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영적 편견'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목 :

본문 :

제 3 과

왜 돌아서는가?

찬송 / 389(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본문 / 눅 9:57~62

들어가면서(서론)

예수께서 다시금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자(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영향을 받은 몇몇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들에게 무엇인가 감화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57절).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따라서 성전이나, 궁전, 또는 가장 힘든 곳까지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매우 훌륭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58절).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낮은 수준의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389장)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딤후 2:3)

이 찬송은 영국국교회 잉글랜드 요크셔주 호버리 브리지의 선교 담당 목사로 재직하였던 새바인 바링 굴드(S. Baring-Gould, 1834~1924) 목사가 작사하였고, 당시 영국 황실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던 아더 설리반(A. Sullivan, 1842~1900) 교수가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영국에서는 성령강림주일(Whitsunday) 후의 첫째 월요일을 휘트먼데이(Whitmonday)라 하여 공휴일로 삼고 있는데, 이 때에 치뤄지는 교회행사의 하나로 어린 학생들이 찬송을 부르며 행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바링 굴드 목사도 1864년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휘트먼데이 행사를 위해 이 찬송가의 가사를 믿음의 행진에 걸맞는 것으로 작사한 것입니다.

눅 9:57-62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좇을 것을 명하고 계신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일들을 이유로 주저하며 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예수님을 좇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선 이 사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모습도 그 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자신의 일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회개해야 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마 9:62)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찬송을 부르며 행진하는 어린 학생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이 찬송의 가사를 순수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목청껏 노래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고 힘찬 목소리로 다 같이 찬송합시다.

여러분은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시고, 이제부터는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읽으십시오).

① 57절~58절 - 예수와 어떤 사람의 대화

② 59절~60절 - 예수와 다른 사람의 대화

③ 61절~62절 - 예수와 또 다른 사람의 대화

2. 다음주일 설교(‘왜 돌아서는가?’)을 읽고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많으며, 예수
수가 위대하고 권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따를 준비는 되었으나 뒤를 돌
아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스스로 생각해 보
십시오)

②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생각해 볼 때,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마가복음 4장 6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누가복음 21장 34절~35절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생활로부터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⑤ 디모데후서 2장 3절~4절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게서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⑥ 요한일서 1장 7절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⑦ 본문 6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가면서(결론)

1.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유념하셔야 합니다(62절). 주님은 망설이는 것은 곧 돌아서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길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 이 시간에는 주님을 향해서 ‘뜻대로 따르겠다’ 라고 말하고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경험을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던지도 말해보십시오.

제목 :

본문 :

제 4 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

찬송 / 210장(내 죄 사함 받고서)

본문 / 롬 12:1~2

들어가면서(서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아름다운 육체가 절대로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예쁜 몸매, 얼굴, 눈, 코 그리고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원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근육에 더 중점을 둡니다. 스포츠 세계에 있어서 어떤 인물들은 자신의 팔에 가장 큰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야구의 투수들은 백만 달러 짜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시속 120 마일의 공을 던지길 원합니다. 미식축구에 있어서 쿼터백들은 정확성과 타이밍, 그리고 강한 힘으로 공을 던져서 큰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테니스 선수들은 강한 서브를 넣기를 원하며, 골프선수들은 프로선수 명단에 오르기 위해 강한 타구를 날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과 은혜

‘내 죄 사함 받고서’ (210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후 5:17)

이 곡은 찬송작가인 월터 스틸먼 마틴(W. S. Martin, 1862~1935)이 작곡하고 그의 부인인 시빌라 덜피 마틴(C. D. Martin, 1868~1948)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이 부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마다 그 감동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작사 작곡하며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이 찬송은 특별히 고후 5:17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체험케 된 삶의 변화를 담은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찬송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두 번 창조되어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심으로 첫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벧전 1:18-19, 고후 5:17)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재창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과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리듬과 선율은 흥겹고 힘차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가득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선물들을 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과 교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단히 붙들어야 하며,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보물들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없다면 교회와 인간 사회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총이 없이는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경공부를 통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시고, 참된 가치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로마서 12장 1절~2절을 읽으십시오).

① 1절a - 바울의 권면

② 1절b - 산 제사와 영적 예배

③ 2절a -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태도

④ 2절b - 하나님을 위한 삶

2. 다음주일 설교('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를 읽고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호세아 7:8과 레위기 20:23에 의하면 에브라임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떤 것을 추구했습니까?

② 요한일서 2:15~17에 의하면 영적인 가치를 대신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③ 마태복음 5:13과 15:14에 의하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④ 에베소서 4:19에 의하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떠한 상태로 전락한다고 말합니까?

⑤ 베드로전서 5:5과 마태복음 16:24에 의하면,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⑥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1~2에 의하면,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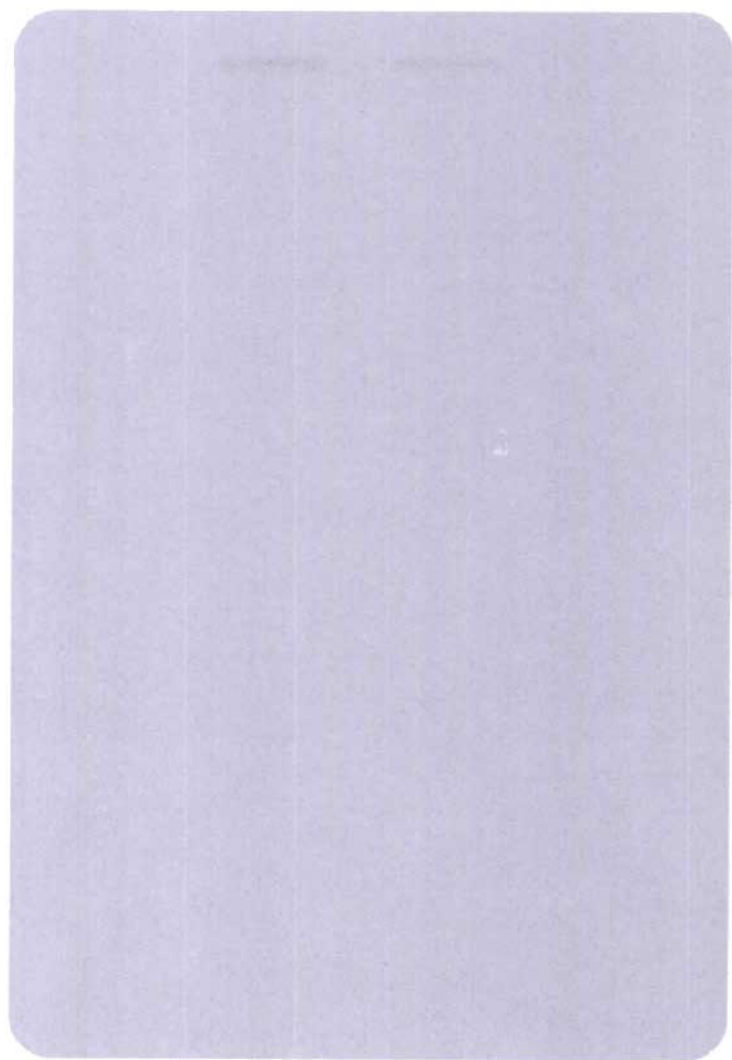
나가면서(결론)

1. 이 시간 다시 한 번 로마서 12:1~2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너희 몸'과 '오직 마음'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2. 동물은 주어진 본능대로 살지만, 인간은 누구나 가치 있게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모습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2 과

경건의 능력

찬 송 / 93장
읽을 말씀 / 단 6:1-27
외울 말씀 / 단 6:10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결과에는 놀라워하지만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처해지는 형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다니엘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해서 사형 선고로 받았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사정이 다니엘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살펴보기

1. 본문의 내용을 다음의 인물에 따라 살펴보십시오.

① 다니엘(2-3절, 10절, 22절)

② 대적들(48절, 15절, 24절)

③ 다리오왕(3절, 14-20절, 25-27절)

뜻을 생각하며 적용하기

2. 다니엘이 대적들의 시기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단6:10, 1:8-9, 2:17-18)

♡다니엘은 정치 생명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과 '포기해야 할 것' 이 무엇인가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할 줄 알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이나 윗사람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3. 여러분의 삶의 현장(가정, 직장, 교회) 가운데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믿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다하여도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단1:8) 계속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단6:10)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혹은 급할 때만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제일의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자 노력하고 그 분을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고자, 하나님과 시종일관 동행하고자 힘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믿음의 결단의 기로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요(마11:28-30)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마16:24).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2년 2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안창덕(1-6일), 이성욱(7-12일), 박인기(13-18일)목사
고광천(19-24일), 김용덕(25-28일)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유진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